

20 February, 2008

롤스-로이스, 부산대에 아시아 최초의 기술연구센터 설립

항공/해양선박/에너지 기술연구의 세계적인 허브로 육성

롤스-로이스가 아시아 최초로 설립하는 산학협력 기술연구센터가 부산에 들어선다.

세계적인 동력시스템 제조업체 롤스-로이스는 20일 오전, 부산대학교 본부동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열교환기 기술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대학기술연구센터(UTC: University Technology Centre) 개소식을 가졌다. 이번에 설립된 '부산대학교 기술연구센터'는 항공/해양선박/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.

이 날 행사에는 부산시 정낙형 정무부시장, 롤스-로이스 콜린 스미스(Colin Smith) 부회장, 부산대학교 김인세 총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.

부산대학교 기술연구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롤스-로이스와 부산대학교 및 중앙정부, 부산시, 부산지역의 기업이 함께 긴밀히 진행해 온 '초효율 초경량 열교환기' 공동연구를 기초로 설립됐으며, 그동안 유럽권에 포진해 있던 롤스-로이스의 기술연구센터가 아시아 지역 최초로 부산대학교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.

롤스-로이스 기술연구의 중심축이 될 부산대학교 기술연구센터에서는 열교환기의 설계뿐만 아니라, 실험, 제작기술 개발 등 다양한 과정의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다. 센터에서 진행된 결과물은 롤스-로이스가 생산하는 항공, 해양선박, 에너지 분야의 전 제품에 활용된다.

이번 부산대학교 기술연구센터 설립을 통해, 국내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, 부산지역의 발전 및 부품 소재 산업의 성장 또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.

개소식에 참석한 김인세 부산대 총장은 "롤스-로이스의 공식 기술연구센터의 설립으로 부산대학교는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으며, 앞으로도 롤스-로이스와의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과 성과를 배출할 것"이라고 밝혔다

롤스-로이스 콜린 스미스(Colin Smith) 부회장은 "열교환기 연구는 환경 개선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며 롤스-로이스는 이미 부산대학교와 수차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.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와의 협력을 계기로, 부산 지역이 롤스-로이스 차세대 열교환기 기술연구의 세계적인 허브로 성장하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이 밖에도 롤스-로이스는 부산대학교 학생에게 영국 현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 교류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.

롤스-로이스는 영국 내 대학을 시작으로 세계 우수대학들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왔으며 1990년 첫 기술연구센터를 설립했다. 현재 전 세계 29개 대학들이 롤스-로이스의 대학기술센터로 지정되어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. 또한, 롤스-로이스는 기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도 지원하고 있다.

롤스-로이스 소개

1. 롤스-로이스는 전세계적으로 민간 항공우주, 방위 항공우주, 해양선박, 에너지 등 4개 분야 시장에 걸쳐 활약하고 있다. 롤스-로이스는 600개 이상의 항공사, 4,000개의 기업 및 다목적 항공기 및 헬리콥터 운영회사, 160개국의 군대, 그리고 70개국의 해군을 포함한 2,000개 이상의 해양업체 등 광범위한 고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, 약 120여개 국가의 에너지 업체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. 기술 선도 기업인 롤스-로이스는 50개국의 사무소, 제조 및 서비스 설비시설에 약 37,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.
2.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활동해 온 롤스-로이스는 아시아나 항공, 대한항공, 각 정부 기관, 그리고 대한민국 육-해-공군에서 운용 중인 300대 이상의 항공기에 대해 500대 이상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. 또한 롤스-로이스의 워터제트, 프로펠러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, 해양경찰청에서 운용되고 있다.
3. 롤스-로이스는 한국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보고, 국내 사업운영 방식으로써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생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.
4. 약 90여명의 직원을 둔 부산 소재의 해양장비공장을 통해 롤스-로이스는 한국, 일본 조선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. 아울러, 국내 주요 조선업체에 가스 터빈을 공급함에 따라 세계적인 정유, 가스 그리고 발전 업체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장착되고 있다.
5. 삼성 테크윈은 롤스-로이스의 국내 파트너사로서 2001년 서명한 장기계약 하에 롤스-로이스가 생산하는 에어버스 A380기용 Trent 900 엔진의 연소실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.
6. 롤스-로이스는 대한민국 해군의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KDX-III 1번함에 장착될 가스터빈 발전기 첫 3세트를 해군에 인도했다. 이중 2세트는 삼성테크윈이 롤스-로이스가 제공한 부품으로 조립 생산하여 인도한 것이다.
7. 롤스-로이스는 2006년 1월 부산시, 부산대와 ‘초효율 초경량 차세대 열교환기’ 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 연구개발에 착수했다. 2006년 11월에는 공동기술연구의 연장선상으로 동화엔텍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가스터빈용 차세대 열교환기 제작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.

자료문의:

CPR 차유정 이사 / 02-739-7348 / 011-328-9643 / junecha@icpr.co.kr
이금희 AE / 02-739-7359 / 010-6312-9992 / trisha@icpr.co.kr